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출발

진안군, 42명 발대식 가져... 9월까지 수질 보호 활동 추진

진안군은 25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6년도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수질 보전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발된 지킴이 42명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간 용담호 유역 주변에서 수질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진안 용담호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충청권 등 150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군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율 관리 체제로 유지하며 맑은 물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지난 2008년 처음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수질관리 모델로 자리 잡으며 용담호 수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이날 발대식에는 동창욱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킴이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진안군은 25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6년도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수질보전 활동에 들어갔다.

행사는 지킴이 위촉과 함께 수질 자율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직무 안내,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며 활동 의지를 다졌다.

특히 지킴이들은 앞으로 △유입하천 수질오염 행위 감시 및 계도, △쓰레기 투기 및 방치폐기물 수거, △불법 낚시·어로행위 단속, △가축분뇨 무단배출 점검, △녹조 예방을 위한 퇴비 아직 관리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위로

천천면 현장 방문... 긴급지원·임시거처 제공 등 신속 대응

장수군은 지난 24일 주택화재 피해 주민을 찾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3월 22일 오후 11시 30분경 장수군 천천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되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에서는 피해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긴급 식



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긴급 지원비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추가적인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

토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실의에 잠긴 황모씨는 "화재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장수군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위로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과 지원책을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고품질 천마 종균 보급... 재배농가 소득 증대

무주군이 지역 내 천마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천마 종균 보급에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무주군은 26일부터 4월 말까지 지역 내 119농가를 대상으로 천마 종균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종균은 시중 가격보다 60% 이상 저렴하게 제공돼 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

간 선별과 포장, 검수 과정을 거쳐 총 10만 병의 종균을 생산했으며, 무주농협 친환경유용사업단과 협력해 공급을 진행한다.

천마 재배는 참나무 원목과 종균, 자마, 토질, 기후 등 다양한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주군 안성면 일대는 전국 천마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로, 현재 400여 농가가 재배에 참여하



고 있다. 천마는 뇌출혈과 뇌졸중, 치매 등 뇌 질환 관련 성분을 함유한 약용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무주=손총기 기자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최우수'

무주군, 주요 건강검진 지표 전반서 높은 수검률 기록 '도내 1위'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주요 건강검진 지표 전반에서 높은 수검률을 기록하며 도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0.11%로 전북 도내 1위를 기록했으며, 국가암검진 수검률도 46.74%로 1위를 차지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수검률 100%를 달성하며 전 계층을 아우르는

건강관리 성과를 입증했다.

군은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1대1 안내를 실시하고, 검진 이후 사후 관리와 안 환자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 암 예방의 날 홍보 주간에는 복지관과 재활센터 등을 찾아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며 검진 대상자 안내와 예방 교육, 참여 독려 활동을 병행했다.

이 같은 주민 맞춤형 행정이 최우수 기관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

/무주=손총기 기자

장수군, 장수 하이패스C 연결도로 사업현장 점검

장수군은 지난 24일 천천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수 하이패스C 연결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동결과 해빙이 반복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와 낙석,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수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이패스C 설치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최훈식 장수군수는 시공 및 감리 관계자로부터 공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절·성토 사면과 배수시설, 통로안거 등 주요 구조물을 중심으로 해빙기 취약구간을 집중 점검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장수 하이패스C 연결도로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관광객 유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이패스C 진입부가 위치한 천천삼거리 구간은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도2호선 확장사업이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 구간으로, 장수군은 향후 교통량 증가와 교차로 혼잡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도 확장사업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주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대외 협력 활동을 강화해 지역 교통망 확충과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2차 총회 가져

진안군은 오는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차 총회를 개최하고 축제 행사계획(안)과 예산집행(안)을 심의·승인하는 한편,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류인평 교수를 초빙해 '진안홍삼축제 발전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축제의 역할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진안홍삼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의 특성을 반영해 자연과 건강을 결합한 웰니스 프로그램도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물관리 현장설명회 열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5일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물관리자동화 조작실에서 관내 농업인과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와 농업인과의 소통을 위한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물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무진장지사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소개 및 원격으로 현장의 수문을 조작하여 시연하고,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사고 사례 등을 공유하여 직원들과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제고 시켰다.

기타 토의 시간에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집중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고 영농기 이전 농업인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상호협력하여 개선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